

韓國의 對濠洲貿易關係와 交易擴大策

朴 宗 漢*

- | <目 次> | |
|-----------------------|--------------------|
| 1. 濠洲의 對外經濟關係와 그 經濟體質 | 3. 韓國의 對濠洲輸出入構造 現況 |
| 2. 最近의 濠洲經濟動向 | 4. 濠洲의 對韓國輸入規制 現況 |
| | 5. 交易上 問題點과 交易擴大策 |

여 리 말

지난 7月에 全大統領의 太平洋頂上會談 提議가 있었고 또 아세아太平洋經濟圈에 관한 論議들이 있는 가운데 그 太平洋經濟圈에 屬해 있는 韓國과 濠洲의 貿易에 있어서 濠洲의 保護貿易主義는 世界的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強化되어가고 있다. 이 러한 保護貿易主義方向을 가고 있는 濠洲와의 交易關係를 論함에 앞서 호주를 알기 위해 우선 濠洲의 對外經濟關係와 그 經濟體質 그리고 最近의 호주經濟의 現況을 본 다음 韓國의 對호주貿易關係와 同貿易에서 發生하는 問題點과 그 對應策 및 交易擴大策을 論하고자 한다.

1. 濠洲의 對外經濟關係와 그 經濟體質

第2次世界大戰前 호주의 對外經濟關係는 宗主國이었던 英國을 中心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政治·外交는 勿論 經濟·社會關係에 있어서도 同一했다. 英國은 大戰前에 호주貿易의 50% 以上을 그리고 對호주 外國投資의 90% 以上을 占有하고 人種構成에 있어서도 英國系人이 90%以上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第2次大戰 以後 호주에 대한 英國의 位置는 크게 줄어들어 갔다.

* 全經聯 常務理事·檀國大學校 待遇教授

우선 防衛面에서 對英國 依存으로부터 對美國 依存으로 轉換하였다. 다시 말해서 ANZUS條約(호주, 뉴질랜드, 美國安全保障條約)에 의해서 安全保障을 美國에 依存하고 있으며 오늘날 호주는 美國의 世界戰略에 있어서 極히 重要한 存在로 되어 있다.

둘째로 人種構成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英國系를 中心으로 한 白人國家라는 地位에 變動은 없으나 戰後에 와서는 從前 西歐羅巴, 美國, 캐나다로 부터의 移民外에 東歐羅巴, 中東으로 부터의 移民도 增加추세에 있어 人種構成이 多樣化되었고 最近 70年代 後半以後에 이르러서는 韓國人을 包含한 東洋人の 移民도 徐徐히 늘어가는 徵候를 볼 수 있게 됐다.

세째로는 經濟的으로 英國으로부터 離脫해가는 事實이다. 即 1966年 7月 以後의 統計를 보면 英·美의 位置가 逆轉하여 美國 40%, 英國 30%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戰後 호주經濟의 對外關係에 있어서 가장 顯著한 變化는 英國의 後退였다. 英國의 EC加盟이 1972年이었는데 英國은 1960年代를 通하여 EC加盟을 摸索하여 왔고 이것이 對應하여 호주도 英國에 代身하는 國家를 찾고 있었다. 韓國과는 1965年 9月에 韓·豪協定締結(75年에 韓·豪貿易通商協定으로 改正)을 하였으나 이 以前에 1957年の 日·豪通商協定締結, 1958年の 말레이시아와의 通商協定이 있었다. 그 後 インド네시아, 比律賓, 뉴질랜드와도 通商協定을 가졌는데 이 以外에도 蘇聯, 東歐諸國과의 貿易促進 그리고 經濟, 技術協力 등의 協定을 締結하였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英國에 代身한 國家는 資本面에는 美國이 되었고 貿易面에는 日本이 되었다.¹⁾

그리고 호주經濟의 體質을 보면 40年代 까지만 해도 農牧畜產業에 依存해 왔던 것인데 第2次大戰中 習得한 技術이라든가 技術者의 蕩積은 戰後工業化的 基礎準備가 되었고 第2次大戰以後 英美系資本을 核心으로 工業화가 推進되었다.

1960年代에 들어서는 工業의 體質強化와 더불어 資源開發段階에 들어갔고 重要部門의 順調로운 發展을 하여 10年間의 平均成長率은 5.2%를 示現함으로써 比較的 高水準을 維持하였다. 이 期間의 消費者物價上昇率은 約 2.5%이고 失業率은 2% 以下에 머물고 있었다. 經常收支는 그 赤字가 資源開發景氣에 따른 外資流入으로서 解消되었으므로 農牧畜產業에 依存했던 時代와 같이 問題化될 것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70年代에 들어와 特히 國際通貨危機와 石油價格의 上昇은 호주經濟에도 重大한 影響을 주었다. 即 호주의 主要輸出品인 羊毛·雪糖·鑛產物은 海外需要의 增大와 價格上昇으로 貿易收支가 急增하여 72年 12月의 外貨準

1) 小島 清編, 濟洲經濟硏究所, 日本經濟新聞社, 東京, 1956年 10月, pp. 207-208.

備高는 48億弗을 記錄하였다.

이렇게 發生한 過剩流動性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일으켜 物價上昇은 年率 7%를 示現하였다. 호주勞動黨政府는 인플레이션 抑制措置를 講究하였지만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74年 事態는 더욱 惡化되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抑制로 採擇된 輸入促進策에 의하여 輸入이 크게 增大하여 이로 因하여 貿易收支의 黑字幅은 半減하였고 또 外貨流入은 規制措置로서 中斷되었으므로 國際收支는 6億8千萬弗의 赤字로 轉換하게 됐다.

한편 輸入急增은 自動車, 纖維類, 電氣機械產業을 壓迫함으로써 失業率은 3.6%로 上昇하였다. 75年末 政權을 잡은 自由·地方黨聯合政府는 景氣回復을 더욱 重視하면서 公共支出의大幅消減, 投資促進, 賃金抑制을 圖謀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을 導入 호주弗의 17.5% 切下措置를 取하였다. 이와 같은 一連의 政策에 의하여 消費者物價指數는 徐徐히 低下하여 民間投資는 上昇傾向을 나타냈다. 그러나 1977年 12月 現在의 失業者數는 40萬 4,085名(失業率로서 6.5%)을 記錄하였고 1981年까지도 失業率은 6%臺를 벗어나지 못하여 經濟環境을 어렵게하고 있었다.²⁾

2. 最近의 濟洲經濟動向

호주經濟는 1980年の GDP 2.2%에서 81年 約 5%의 GDP成長率을 示現함으로써 西方先進國들 中에서 最高成長率을 보였던 것이나 今年 82年에 들어와서는 그 成長率이 顯著하게 鈍化될 것이고 81年の 40% 또는 그 以下의 水準에 머물 것이豫見되며 이는 先進國의 不況克服과 經濟回復에 대한 成果與否에 달려 있다고 濟洲의 經濟專門家³⁾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世界經濟動向을 簡略하게 우선 보고 그 다음에 濟洲經濟現況을 보기로 한다.

國際通貨基金(IMF)은 8月 22日 世界經濟를豫測하는 1982年的 年次報告書를 發表했다. 이 報告에 의하면 先進工業國의 實質成長率은 今年에 1% 前後가 될 것이며 非產油開發途上國의 成長率도 戰後最低水準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分析하고 있다. 同報告는 「安易한 景氣浮揚策은 인플레이션을 再燃시킬 뿐」이라고 指摘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抑制策의 堅持가 結局에 가서는 雇傭改善과 連結되는 것이라고 強

2) JETRO, 貿易市場 시리즈, No. 206 오스트리아, JETRO, 東京, 1982年 3月, pp. 1~2.

3) John D.S. Macleod, *The Australian Economy*, AKBCKKABCC 4th Joint Meeting Paper, 9-13 August, 1982, p. 1.

調하고 있다.

世界經濟動向의 그 要旨를 同報告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即 ① 인플레이션은 어느 程度 鎮靜되었으나 世界 여러 國家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率이 높은狀態에 있다. ② 先進國의 成長率은 3年連續으로 低成長 또는 負의 成長의 길로 가고 있다. ③ 先進國의 失業率이 높고 또 上昇하고 있다. ④ 世界貿易伸長率이 顯著하게 鈍化하고 多數國家의 經常收支가 惡化하여 對外債務가 累積되고 高金利의 영향을 받아 元金利子 支拂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現狀況에서 擴大的인 財政 金融政策을 取한다면 一時的 限定된 効果를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인플레이션과 一層 더한 스탬그플레이션으로 連結될 風險性이 크다.

國內需要의 低調와 高失業率을 內抱한 先進國間의 保護貿易主義의 高潮 一次產品 價格下落에 의한 發展途上國의 購買力低下는 世界貿易의 擴大에 있어서 重大한 問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 失業 등의 解決을 위해서는 需要管理策만으로는 不足하다. 貨金 및 商品價格의 決定方式, 政府支出 稅制 등 經濟各部門에서 볼 수 있는 硬直性이라든가 構造的 不均衡을 除去하기 위해 過度의 政府規制衰退產業에 대한 지나친 保護政策의 再檢討 등을 包含한 擴範圍한 政策이 必要하다고 分析하고 있다.⁴⁾

또 同報告에 의하면 先進工業國의 實質成長率은 80年~81年 兩年 平均으로 1.25 %의 低調로 나타나 있고 77年~79년의 平均 4%에 比하여 大幅 下廻하고 있다. 82年央의 先進國失業率은 平均 8%로서 73년의 5%에 比해 大幅 높어나고 있다. 따라서 各國內 保護主義를 臨願시키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리면 이와 같은 世界經濟動向 속에서 호주經濟의 現況은 어떠한가. 既述한 바와 같이 70年代 初期의 濟洲는 의심할 餘地 없이 큰 好景氣를 맞이했던 時期이고 大多數 濟洲人 特히 知識階級과 上層中流 엘리뜨들은 그러한 狀況을 現在 느끼는 것 보다도 더 오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⁵⁾ 그러던것이 世界經濟의 景氣沈滯의 영향을 받아 1970年代 中期 以後의 호주經濟는 인플레이션, 失業 製造業의 構造變革 등 여러가지 課題에 直面하게 되어 四半世紀 繼續되었던 戰後의 高度成長이 中斷되었다.⁶⁾

IMF(國際通貨基金)報告에서도 論하고 있는 바와 같이 今年 先進工業國의 實質成長率은 1% 前後가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는데 濟洲經濟도 일찌기 經驗치 못한

4) 日本經濟新聞, 1982年 8月 23日.

5) Herman Kahn and Thomas Pepper, "Will She Be Right?" The Future of Australia,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Australia, 1980, 麻生雍一郎, 日譯書 p. 18.

6) 小島 清編, 前掲書, p.27.

經濟的 困難을 只今 當하고 있다. 지난 6個月間 不況回復을 為해 안간힘을 하고 있으나 그 成果는 神通치 않다. 消費者物價指數는 1982年 3月基準으로 昨年同期에 比해 10.5% 上昇했고 이것은 OECD 平均值에 比해 1.5% 높으며 濟洲의 主要交易國에 比하면 3.5%나 더 높다.⁷⁾ 物價上昇抑制策의 一環으로 最近 濟洲聯邦政府의 후래이자 首相은 主要 2,000個會社에 公翰을 發送해서 最高經營者들의 紿與上昇을凍結해 줄 것을 要請했다. 이것은 인플레抑制를 위해 一般勞賃을抑制하기 위한 分圍氣造成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인플레率에 下廻하는 範圍內의 紿與支給策을 쓰도록 했고 따라서 인플레이션率下廻給與支給策(the lower-than-inflation-salary determination)은 現在로서는 大體的으로 成功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濟洲勞動組合의 將次의 態度에 따라서 그 成敗가 決定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⁸⁾

또 失業狀態는 不況이 깊어짐에 따라 더 甚하고 今年 7月末 現在 季節調整 6.9% (6月末現在 6.7%)로서 戰後最高記錄의 失業率를 示現하였고 7月 한달동안에 9,000名의 失業者를 배출했다. 이런 狀況대로 간다면 最高失業率은 8%에 이를 것이豫想되며 失業者數는 50萬名線을 超過하게 될 것으로 본다.⁹⁾

製造業部門을 보면 <表·1>¹⁰⁾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衣類, 織物, 신발류는 1976年~77年을 100으로 했을 때 1980年 成長指數가 105였던 것이 1981年에는 107로서 대체로 低調하며 金屬類와 機械類의 長成指數는 1980年에 107이었던 것이 81年에는 100

<表·1>

ANZ Bank Index of Factory Production

1976~77=100

	1980	1981
平均以上 成長		
化學製品	115	124
紙 類	117	120
크레이, Cement, 콩크리트제품	107	110
運送裝備	92	109
木 製 品	103	108
平均成長		
衣類, 織物류, 신발류	105	107
平均成長以下		
食品, 飲料, Tobaco	96	101
Metals, Machinery etc.	107	100

7) *Review, Bank of New South Wales, Sydney, Australia, No. 6-July, 1982, p. 1.*

8)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Sydney, Friday, August 13, 1982, p. 3.*

9) *The Austrian Financial Review, p. 1.*

10) John D.S. Macleod, *op. cit.*, p. 5.

<表·1-2>

호주의 國際收支

(單位: 百萬 \$)

	1980	1981	1982
輸 出	+18,363	+19,024	+18,915
輸 入	-15,642	-18,744	-22,241
貿易收支	+2,721	+279	-3,327
Net Invisibles	-4,061	-4,646	-5,622
Balance Current Account	-1,341	-4,366	-8,949
Net Capital Inflow	1,027	5,524	10,178

資料: ANZ Bank

註: 82年 8月中 호주弗 1\$의 美國弗 1\$과 거의 同等한 交換率로 되어 있다.

으로 떨어져 負의 成長을 나타내고 있으며 輸入量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濟洲政府는 이를 製造業을 위해 保護政策을 쓰고 있으며 한편 政府財政支援으로서 돋고 있다.

또 鐵山物部門에 있어서도 鐵物價格의 世界的 下落과 그 需要의 弱勢로 因하여 鐵物은 不振한 狀態를 免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한편 <表·1-2>¹¹⁾에서 호주의 貿易收支를 보면 80年에 2,721百萬弗이었던 것이 81年에 279百萬弗로 減小하였고 82年에는 -3,327百萬弗로 큰 赤字가 豫見되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濟洲經濟는 現在 인플레이션과 勞動賃金政策에 있어서 過去의 失策때문에 國際競爭力を 衰弱하고 있고 또 이미 論한 바와 같이 鐵山物의 世界的價格下落추세와 그 需要의 弱勢 그리고 農產輸出의 減小 등으로 國際收支改善에 있어 어려운 處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려므로 結論的¹²⁾으로 말해서 今年의 濟洲經濟는 그 成長이 매우 鈍化될 것이고 그 成長의 열쇠의 하나는 經濟依存度가 큰 美國과 日本과의 經濟關係의 發展度에 따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열쇠는 既述한 國際競爭력을 회復시키는데 있어서의 濟洲政府의 財政·金融政策에 대한 役割如何에 달려 있다고 본다.

3. 韓國의 對濟洲輸出入構造 現況

韓國과 濟洲와의 輸出入現況을 보면 <表·1-3 參照> 1981年的 總交易量이 12億 달러로서 過去 5年間 年平均 34%의 높은 伸張率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81년 우리나라 總交易量 470億달러의 2.5% 水準에 不過함으로 向後 兩國間 交易增大의 可能性은 많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의 對濟洲輸出 内容을 (表·1-3)에서 보

11) John D.S. Macleod, *op. cit.*, p. 9.12) John D.S. Macleod, *op. cit.*, p. 10.

<表·1-3>

韓·濱兩國間 交易現況

(單位: 千弗)

	總交易(增加率)	輸出(增加率)	輸入(增加率)	收支(增加率)
1 9 7 5	267,811 33%	63,055 △12%	206,756 58%	△141,701 1 : 3.2
1 9 7 6	315,219 18%	99,345 57%	215,874 5%	△116,529 1 : 2.1
1 9 7 7	400,817 27%	120,133 21%	280,684 30%	△160,551 1 : 2.3
1 9 7 8	612,658 53%	148,893 24%	463,765 65%	△314,872 1 : 3.1
1 9 7 9	756,010 23%	156,967 5.4%	599,043 29%	△442,076 1 : 3.8
1 9 8 0	910,390 36%	230,371 47%	680,019 14%	△449,648 1 : 3.0
1 9 8 1	1,203,389	293,425 42.5%	909,964 △5.3%	△616,539

자료：商工部

면 81年에 總金額으로 293,425千달러에 達하여 이것을 主要品目別로 보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위가 纖維類로서 93,779千달러이며 全體輸出額中 32%를 차지하고 이는 前年對比 60.6%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제2위는 鐵鋼製品 50,146千달러로서 17%를 占有하고 前年對比 100.0%의 增加率을 示現하고 있으며, 제3위는 타이어 및 튜브로서 22,234千달러, 제4위는 玩具 및 人形으로서, 14,309千달러, 其他 99,110千달러의 順位로 되어 있다.

또 輸出의 概念에 包含되는 對濱洲國際入札參加 現況을 보면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年 1月에서 82年 4月까지의 期間에 7件으로서 品目으로는 石炭燃燒式 보일러, 素錢 2,800%, 水門設備, Coal Handling Plant, Bulk Carrier 2隻, 變壓器 33個 등이었고 이 中 三星物產이 素錢 2,800%中 82年 1月 15日 入札한 500屯이 落札(2.000萬弗)되었고 2他件은 評價中에 있었다(82年 8月現在). 우리는 앞으로 이런 國際入札에도 積極參加하여 輸出額을 擴大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對濱洲輸入面을 보면 81年에 909,964千달러로서 前年對比 34%의 輸入增加를 보이고 있으며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年以來 輸入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主要品目別로 보면 <表·2-2>에서 보는 것처럼 81年에 코크스와 半成코크스 輸入이 185,674千달러로 全體構成比의 20.4%를 占有하고 있고 제2위가 原糖으로서 158,902千달러 構成比 17.5%, 제3위 黃鐵礦 134,254千달러 構成比 14.8%, 羊毛 121,116千달러 構成比 13.3%, 쇠고기 76,839千달러 構成比 8.4%, 其他 233,179千달러로 되어 있다.

〈表·2〉

○ 主要品目別 輸出

對濱主要品目別 輸出入 現況

(單位：千弗， %)

區 分	1981			1982(1~3)		
	金額	構成比	前年減率	金額	構成比	前年減率
織 繩 類	93,779	32.0	60.6	19,424	23.1	1.0
鐵 網 製 品	50,146	17.2	100.0	18,187	21.6	88.9
타이어 및 튜브	22,234	7.6	45.8	5,356	6.4	38.9
신 발 類	13,577	4.6	94.1	3,258	3.9	77.1
玩 具 및 人 形	14,309	4.9	30.3	3,084	3.7	20.1
其 他	99,110	33.8	—	34,897	41.4	—
計	293,425	100.0	21.4	84,206	100.0	49.6

資料：商工部

〈表·2-2〉

對호주 主要品目別 輸入

(單位：千弗， %)

區 分	1981			1982(1~3)		
	金額	構成比	前年減率	金額	構成比	前年減率
原 糖	158,902	17.5	△20.2	9,206	5.1	△7.8
코크스와 반성코크스	185,674	20.4	46.6	45,269	25.1	112.2
黃 鐵 鋼	134,254	14.8	42.2	29,804	16.5	△12.1
羊 毛	121,116	13.3	32.4	30,287	16.8	15.9
쇠 고 기	76,839	8.4	6倍	25,818	14.3	19倍
其 他	233,179	25.6	—	39,941	22.1	—
計	909,964	100.0	33.8	180,325	100.0	△5.3

資料：商工部

主要競爭國과의 對濱洲交易現況을 比較해 보면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面(80.7/81.5)에서 제 1위는 日本으로서 市場占有rate이 19.2%이고, 제 2위는 臺灣으로서 2.7%, 제 3위는 싱가풀, 제 4위는 香港으로서 2.1%, 제 5위는 中共으로 1.5% 그리고 韓國은 제 6위로서 0.8%를 占有하고 있어 亞細亞에 있는 所謂 新興工業國(NICS) 中에서는 對濱洲輸出市場占有rate이 第 1下位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對濱洲輸入面을 보면 輸入構成比에 있어서 日本이 30%로서 第 1位에 있고 第 2位는 中共으로서 5.1%, 第 3位는 韓國으로서 3.2% 그리고 對濱洲輸出市場占有rate에서 韓國을 앞지른 香港은 第 5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10大輸出市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競爭國인 臺灣·香港·싱가풀과 比較해 보면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은 10大輸出市場에서 濱洲가 包含되어 있지 않는데 比해 臺灣은 그 順位가 第 5位 市場占有rate 金額基準으로 3%이며 輸出額은 677百萬弗이고 홍콩은 第 9位 市場占有rate 2.7% 輸出額 599百萬弗이며 싱가풀은 第

<表·2-3>

主要品目別 對濱洲輸出

(單位: 千弗, %)

區 分	1979		1980		1981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計	156,967	100.0	230,371	100.0	293,425	100.0
水產物	2,481	1.6	5,757	2.5	6,115	2.0
化工作品	5,748	3.7	8,092	3.5	5,980	2.0
타이어 및 튜브	8,523	5.4	15,248	6.6	22,231	7.5
合成樹脂製品	12,967	8.3	22,793	9.9	19,421	6.6
金屬製品	5,628	3.6	5,788	2.5	7,136	2.4
鐵鋼製品	19,652	12.5	25,202	10.9	50,416	17.1
(鐵板)	14,101	9.0	21,328	9.3	29,056	9.9
(鋼管)	2,045	1.3	2,549	1.1	11,487	3.9
機械類	1,944	1.2	4,041	1.8	5,262	1.7
電子製品	8,610	5.5	10,670	4.6	14,494	4.9
(T V)	601	0.4	2,379	1.0	6,390	2.1
(라디오)	3,425	2.2	3,212	1.4	3,850	1.3
船舶	91	0.1	28,705	12.5	216	—
纖維類	50,494	32.2	58,407	25.4	93,779	31.9
(纖維類)	15,808	10.1	24,800	10.8	33,062	11.2
(纖物)	15,079	9.6	16,705	7.3	24,458	8.3
(纖維製品)	19,606	12.5	16,901	7.3	36,259	12.3
신발類	6,239	4.0	6,993	3.0	13,577	4.6
玩具 및 人形	7,807	5.0	10,980	4.8	14,309	4.8
其他	26,781	17.1	27,695	12.0	40,489	13.7

資料：商工部

6位 市場占有率 4.0% 輸出額 838百萬弗로 되어 있다.

이들 我國競爭國의 對호주 輸出은 韓國의 81年 對호주 輸出額 293百萬弗에 比하면 約 2倍에서 3倍에 該當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濱洲貿易收支推移를 보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5年以來 平均 約 1對3의 比率로서 入超의 貿易逆調를 나타내고 있다. 金額으로 81年的 그것을 보면 616,539千弗이 되며 75年부터 81年間의 逆調額을 合計하면 2,242,916千弗에 達한다. 호주에서 輸入한 大部分의 品目이 우리나라가 必要로 하는 天然資源이라고는 하지만 韓·濱兩國間의 貿易逆調는 互惠自由貿易主義의 原則에 따라서 是正되어야 할 것이며 前述한 바와 같이 호주市場에 있어서의 競爭國과의 市場占有rate과 比較해 보더라도 濱洲는 一種의 無差別原則에 의하여 市場을 韓國에게 더開放해야 할 것으로 본다.

〈表·2-4〉

主要品目別 對濱洲輸入

(單位: 千弗, %)

區 分	1979		1980		1981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計	599,043	100.0	680,019	100.0	909,964	100.0
石炭	122,218	20.4	125,691	18.5	185,674	20.4
肉類	106,512	17.8	10,437	1.5	76,837	8.4
(牛肉)	88,630	14.8	4,120	0.6	—	—
(羊肉)	17,222	3.0	6,317	0.9	—	—
羊毛	89,847	15.0	91,494	13.5	121,116	13.3
金屬鑄	68,279	11.4	94,398	13.9	163,998	18.0
(鐵鑄)	51,109	8.5	72,837	10.7	85,693	9.4
(亞鉛鑄)	8,274	1.4	8,277	1.2	—	—
(망강鑄)	6,854	1.1	11,323	1.7	—	—
原糖	55,513	9.3	199,500	29.3	158,902	17.4
鐵製品	35,688	6.0	45,583	6.7	58,458	6.4
金屬製品	24,600	4.1	16,506	2.4	19,625	2.1
(銅 및 製品)	18,152	3.0	10,410	1.5	2,200	0.2
(알미늄)	4,812	0.8	3,142	0.5	6,046	0.6
牛脂	18,695	3.1	2,434	0.4	2,053	0.2
原皮	10,553	1.8	3,696	0.5	9,555	1.0
소금	10,114	1.7	18,878	2.8	22,821	2.5
가사	57,024	9.4	71,402	10.5	90,925	9.9

資料：商工部

4. 濱洲의 對韓國輸入規制 現況

濱洲와의 交易에 있어서 第一問題가 되는 것은 再言할 바 없이 濱洲의 對韓國輸入規制措置이다.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規制品目은 纖維類, 合板, 타이어, 코드, 스피링·뼈 등이 關稅割當制(Tariff quota)로 되있고 신발류, 냉장고, 乘用車, 鐵鋼製品들이 Global quota로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GATT 19條(免責條項)에 法的根據을 두고 있다.

그리고 濱洲의 對韓輸入規制豫想品目으로는 數量制限對象으로서 볼트너트, 가방類가 있고 反덤핑關稅 提訴로 되어 있는 品目으로는 Woven polyolefin bags, Certain Pigments, Stearic Acid High Grade, Zinc Ammonium Chloride, Cold-rolled and Galvanized Sheet and Coil of Iron and Steel 등이 있다(表·6-2 參照)。

우리나라의 對호주 輸出品目中 그 比重이 第一 큰 鐵鋼製品과 纖維類에 대한

<表・3>

主要競爭國의 對歐洲交易現況

(1) 對歐洲輸出

(單位：百萬 A \$)

國 別	77/78		78/79		79/80		80.7/81.5	
	金額	占有率	金額	占有率	金額	占有率	金額	占有率
歐洲總收入 (增加率)	11,167 (7.3%)	100.0	13,752 (22.2%)	100.0	16,216 (17.9%)	100.0	17,210	100.0
韓 國 (增加率)	120 (25.5%)	1.1	136 (13.3%)	1.0	138 (1.5%)	0.9	137 (6.2)	0.8
中 國 (增加率)	265 (4.4%)	2.4	332 (24.9%)	2.4	381 (14.8%)	2.3	365 (4.0)	2.1
臺 灣 (增加率)	247 (16.0)	2.2	338 (36.8)	2.5	441 (30.5)	2.7	465 (15.4)	2.7
日 本 (增加率)	2,112 (△1.8)	18.9	2,426 (14.9)	17.6	2,527 (4.2)	15.6	3,312 (44.3)	19.2

註 : 80/81 增加率은 前年同期比임.

자료 : ABS

(2) 對歐洲輸入

(單位：百萬 A \$)

國 別	77/78		78/79		79/80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總 計	12,270	100.0	14,247	100.0	18,897	100.0
日 本	3,896	31.8	4,111	28.9	5,780	30.6
中 共	581	4.7	438	3.1	963	5.1
韓 國	215	1.8	331	2.3	507	2.7
法 래 이 지 아	215	1.8	321	2.3	330	1.7
中 國	265	2.2	449	3.2	599	3.2

資料 : ABS

輸入規制措置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鐵鋼製品에 對한 規制內容을 보기로 한다. 이 製品은 1978年 7月에 Global Tariff Quota制로 實施되었다가 1980年 4月에 Quota制가 慶止되고 대신 主要輸出國에 自律規制를 要請하여 韓國, 日本 등이 그 對象이 되었고 自律規制對象品目에 있어서 韓國은 冷延, 热延, 鋼管等이 그 對象이 되었고 日本은 冷延, 鋼管等이 그 對象品目으로 되어 왔다. 그려던 것이 1981年 3月에 81/82年度 自律規制物量協議時 韓國側은 48,000%을 主張한데 反하여 朝鮮側은 25,000%을 要請함으로서 協商이

〈表·4〉

國際入札參加現況

(單位：千弗)

業體	品目	發主處	金額	入札日	備考
韓國重工業	石炭燃燒式보일러	State Electricity Commission of Victoria	60,000	81. 3. 24	
三星物產	素錢 2,800%	Royal Australian Mint	10,640	82. 1. 15	500屯落札 (200萬弗)
三星重工業	水門設備	Queensland Water Resources Commission	4,900	82. 1. 27	評價中
"	Coal Handling Plant	The Electricity Commission South Wales	31,000	82. 2. 15	"
現代綜合	Bulk Carrier 1隻	Austocean Pty. Ltd.	25,000	82. 3. 9	"
"	變壓器 33	Bechtel-MKI	1,500	82. 3. 26	"
"	Bulk Carrier 1隻	T.N.T. Bulships Ltd.	25,000	82. 4. 12	"

자료：商工部

〈表·5〉

10大輸出市場의比較(81年)

(單位：%)

順位	韓國		臺灣		香港		新加坡	
	國名	比重	國名	比重	國名	比重	國名	比重
1	美	26.5	美	36.1	美	27.8	말 레 이 지 아	15.6
2	日	16.4	日	11.0	中	9.0	美	13.2
3	香港	5.5	香港	8.4	英	7.1	日	10.1
4	사우디아라비아	5.1	西	4.0	西	6.3	香港	8.8
5	西	3.8	호주	3.0	日	4.7	태국	4.2
6	英	3.3	사우디아라비아	2.7	싱가폴	4.1	호주	4.0
7	리비아	2.8	싱가폴	2.7	인도네시아	3.8	인도	2.7
8	캐나다	2.3	캐나다	2.5	臺	2.8	西獨	2.5
9	프랑스	1.9	영국	2.5	호주	2.7	사우디아라비아	2.4
10	인도네시아	1.7	인도네시아	1.9	캐나다	2.2	英國	2.4

資料：韓國貿易協會〈調查資料 82—35〉p. 41.

決裂되었고 한편 81年 4月에 호주側은 韓國產 鋼연 및 아연도강판에 대한 텁평 關稅賦課를 主張했던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唯一한 鐵鋼生產會社인 BHP(JLA) 가 82年 3月 31일에 호주商工省에 대하여 輸入增加 및 労組罷業, 高賃金, 國內景氣沈滯를 理由로 輸入制限要請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호주의 TAA(Temporary Assistance Authority)는 82年 6月에 鐵鋼產業保護를 위한 公聽會를 가졌으며 그 目的은 ① 暫定輸入規則方案 檢討 ② 暫定關稅率引上 및 特惠關稅廢止 檢討 ③ 其他暫定支援方案 檢討 등이 있다. 특히 韓國에 대한 特惠關稅(DC) 철체와 Pipe 및 Tube에 대한 10% Surcharge 賦課(現行關稅率 15%) 등을 檢討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다시 82年 8月의 IAC(Industry

<表·6>

洲洲의 對韓國 輸入規制 現況

Tariff Number	Products	Nature of the NTM	Date of Implementation	Legal Ground
Ex 51—61	Textile products (including nearly whole items)	Tariff quota		GATT 19
—	Yarns and woven fabrics (including nearly whole items)	Tariff quota		
—	hose, stocking and tights	"		"
4415	Plywood	"	Jan 1978	"
5104	Tire cord	"		"
5509	fabrics			
5911				
Ex 8422	Chain pulley tackle and hoists	"		"
Ex 9404	Sleeping bags	"		"
Ex 8525	Electric Insulators	"		"
Ex 6402	All footwear parts	Global quota		GATT 19
8415	Refrigerators	"		"
Ex 8702	Passenger motor vehicles	"		"
Ex 8519	Fixed registor	"		"
Ex 8211	Double edged razor	"		"
Ex 7313	Plates and sheets of iron or steel	"		"

* GATT 19條 內容 : 特定商品의 輸入에 對한 緊急 輸入禁止 措置.

資料 : 商工部

Assistance Committee) 公聽會에서 韓國產에 대하여 81~82年까지의 水準을 超過時에는 Tariff Quota의 適用을 받도록 決定을 보았고 쿠타 초과 輸入分에 대하여는 150%의 關稅를 부과키로 했다.

둘째로 對호주輸出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纖維類에 대한 輸入規制內容을 보면 호주는 82年 1月 1日부터 纖維絲 및 一部織物에 대하여 關稅를大幅引下하여 輸入을 自由化하였으나 韓國產에 대하여는 關稅割當制를 實施하고 있다. 한편 호주商工省은 韓國產 면사 및 혼방사(Yarn)에 대한 덤핑關稅를 부과코자 82年 7月 19일 켄베라市에서 公聽會를 가진 바 있는데 그 後 10月 27일에 덤핑判정이 났다. 따라서 現在 韓國은 業界代表團을 호주에 派遣하여 抗訴中에 있는 實情이다.

셋째로 韓國產 봉제완구에 대하여 호주政府는 82年 8月 27일부터 0%에서 20%로 引上하였으며 이것은 一般關稅(GT)에 該當된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오늘날 先進各國들이 貿易制限措置를 安易한 생각으로 導入하여 保護主義로 간다는 것은 短期的으로는 國內生產業者의 利益이 되겠으나 長期적으로는 一國經濟全體의 損失이 되고 한편 發展途上國의 經濟發展을 貿易面에서

〈表・6-2〉

洲洲의 對韓輸入規制豫想品目

品	目	規制豫想形態	備	考
불 가	트 냉	트	數量制限	
	방	類	"	
Woven polyolefin bags and sacks		反復徵關稅	80. 12. 23	提訴
Certain Pigments		"	81. 3. 31	提訴
Stearic Acid High Grade		"	80. 7. 30	提訴
Zinc Ammonium Chloride		"	81. 4. 2	提訴
Cold-rolled and Galvanized sheet and Coil of Iron and Steel		"	81. 5. 7	提訴

資料：商工部

阻害하여 世界經濟全體의 發展을 害치게 된다. 自由貿易은 世界的立場에서 効率의 으로 資源配分을 하고 世界貿易의 擴大에 寄與하는 것이며 一國經濟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中長期的으로는 資源의 最適分配를 効率의 으로 促進하고 經濟全體의 生產性을 向上시켜 物價의 安定, 消費者利益의 增進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景氣停滯가 長期化하는 情勢下에서는 競爭力의 低下한 產業의 轉換이 圓滑하게 推進되지 않고 特定產業의 救濟, 雇用의 確保 등 國內均衡의 回復을 위한 要求의 소리가 높아 保護貿易主義의 措置와 結托되거나 쉬운 環境이 생기게 되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貿易環境 속에서는 一國의 貿易制限措置는 他國에도 波及하기 쉽고 保護貿易主義는 世界貿易을 縮小均衡의 方向으로 이끌어 나가 世界經濟의 安定的 發展의 基盤을 喪失케 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濟洲는 非効率的 產業이라든가 國際競爭力의 低下된 產業을 언제까지나
保存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他產業으로 轉換시키도록 積極努力하고 特히 韓
國을 新興工業國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開發途上國家에 屬하고 있는 우리나라 商品
에 對한 輸入制限措置를 緩和해 주는 方向으로 나가야 할 줄 알며 또 우리나라 政
府도 通商外交를 積極展開하여 對濟洲貿易逆調是正에 繼續努力해야 함을 다시 論
하지 賴을 수 없다.

5. 交易上問題點與交易擴大策略

우리는 지금까지 輸出主導型經濟를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經濟의 活路는 輸出에 있으므로 貿易立國을 새삼 強調할 必要는 없다. 今日의 國內經濟가 不況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輸出不振에

<表·7>

韓國의 對澳洲投資現況

事業名	會社名	合作先(投資比率)	總投資規格	生産規模	備考
Wool Processing Project	Goulburn Wool Processors Proprietary Ltd.	韓國 제일모직 (44%) 삼성발산 (5%) 豪洲 F & G사 (51%)	800萬 A \$ (90 %는 현지金融) 韓國投資額 392千 A \$	洗滌脫脂 羊毛(SW) 4,500屯/年	'81.8 投資開始 '82.6 竣工豫定 '82.7 生產豫定
Drayton Coal Project	Drayton Coal Pty. Ltd.	韓國 현대종합상사 (2.5%) 대성탄화 (2.5%) 豪洲 CSR (44%) Shell Company of Australia (39%) AMP (7%) 日本 Mitsui (5%)	2億 A \$ 5,149千 A \$ 5,149千 A \$ 90,402千 A \$ 80,322千 A \$ 14,400 " 10,298 "	發電用 有煙炭 300萬屯/年	'82.3 投資開始 '83부터 生產豫定 * 韓電供給計劃 83年 165千屯 84年 33萬屯 8年以後 55 萬屯
Mt. Thorley Project	Mt. Thorley Co-Venture	韓國 POSCO (20%) 豪洲 R.W.Miller & Company., Ltd. (80%)	262百萬 A \$ 韓國側 43,766千 A \$ 豪洲側 218,834千 A \$	製鐵用 有煙炭 300萬屯/年	'82.2.23 投資開始 '82.4.23 竣工 * 無期 20年間 50萬屯/年 開發輸入
計			韓國側 54,456千 A \$ 豪洲側 411,646千 A \$		

資料：商工部

그原因이 있다고 말해도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輸出不振 打開策을 위해서는 政府와 民間이 모두가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對處해 나가야 함은 더 말할 必要가 없는 일이다. 輸出不振의 打開策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原因을 正確하게 分析하고 그것에 對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今年의 우리나라 輸出不振의 原因은 對外的으로는 世界經濟의 長期沈滯과 各國의 保護貿易主義에 있고 對內的으로는 우리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의 弱化와 新製品開發이 잘되어 있지 않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事情은 韓國의 對호주輸出

13) 拙稿, 「輸出不振現況과 打開策」全經聯誌, 1982年 10月호.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該當된다.

호주와의 交易問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니 첫째로 問題가 되는 것은 濟洲의 對韓國 輸入制限措置이다. 이것은 호주의 經濟動向에서 論한 바와 같이 호주經濟가 世界經濟의 不況의 영향을 받아 國際收支가 惡化되고 高率의 失業者가 發生하여 自國의 國內產業을 保護하기 위해서 取해진 措置임으로 이와 같은動向은 앞으로도 잘 풀릴 展望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는 호주의 對美換率의 問題인데 지난 82年初부터 對美換率이 下落勢를 보이기 시작 10月 6日現在 호주貨 1弗 : 美貨 0.9467로서 今年 1月 1日부터 10個月만에 約 16.4%가 下落하였다. 한편 對YEN貨(日本)의 경우는 強勢로 轉換되었으며 H.K.달러, 中共의 원貨 등은 變動이 없거나 變動이 있어도 경미한 關係로 직접 現地貨로 결재하는 境遇 輸入商에게 큰 損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韓國과의 去來時에는 輸入業者들이 價格競爭을 위한 換率에 의한 損失保償을 위해 價格調整을 要求하고 있는 事態이다.¹⁴⁾

세째로 對호주 輸出에 있어서 一部品目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호주市場에 맞는 商品을 많이 開發해야 한다. 例로서 對호주輸出品目中 81年統計로 보면 鐵鋼製品이 全體輸出의 17.1%를 占하고 있고 또 纖維類가 31.9%를 차지하고 있다. 品目多邊化에 힘써야 하겠다.

네째로 問題가 되는 것으로 我國商社의 마케팅活動의 不足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特定商社의 單獨세일즈活動 가지고 넓은 호주大陸의 市場을 카버하기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다고 본다. 한편 After Service의 體制를 強化하고 小量注文에 對한 積極的인 姿勢도 必要하며 商品을 宣傳하는 일에도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

對호주市場 交易擴大策으로 여러가지로 論할 수 있겠으나 첫째로 輸入規制에 대한 對策으로는 特定品目에 대한 소나기式 輸出을 止揚하기 위해서 輸出集中品目에 對하여 業界의 自律的 調整이 組合中心으로 하던 이루어져야 하겠고 한편 商工部 등 關係政府機關의 行政指導가 必要하다. 왜 그런고하니 GATT의 緊急輸入制限措置 등의 規定을 適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規制品目的 輸出限度의 最大限 確保를 위해서 政府間의 各種 協商에 積極的으로 對處하는 한편 關係國際會議에서 保護貿易의 廉害와 自由貿易의 利點을 力說함에 있어서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가야 한다. 또 新規로 輸出制限을 할려는 豫象品目에 對한 칠서한 調査를 하여 物量規制前에 業界의 自律調整을 하도록 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公館, KOTRA무역관들은 規制情報 入手活動을

14) KOTRA, 호주貿易館 82年 10月分 報告書中에서.

더욱 能動的으로 展開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輸出商品의 多樣化에 있어서는 規制받지 않는 新規商品을 積極開發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物量的으로 規制받는 商品에 대하여는 高級品化를 通한 高價品輸出에 많은 關心을 갖고 對處해 나가야 하겠다.

新規品目の例로서는 鐵山裝備인 불도차, Coal Car 및 Mining Car 등을 對호주輸出品目으로 追加하여 輸出에 힘을 기우릴 必要가 있다.

호주는 大部分이 노천광으로 Open Cut 方式으로 生產하고 있으며 또한 最近 호주의 鐵山開發붐에 따라 鐵山장비의 追加的 輸入需要가 豫想되기 때문이다.

네째로는 現地 有望分野의 合作投資를 適切히 하는 일이다. 特히 資源이 없는 韓國으로서는 長期的인 眼目에서도 資源安定供給을 위해 絶對로 必要한 것이며 또 호주는 豐富한 資源保有國이기 때문이다. 現地合作投資에 있어서는 我國과 相互補完性 있는 分野와 世界經濟의 產業調整 問題가 있을 때 我國에 有利한 比較優位性이 있는 것을 擇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한편 將來 太平洋經濟共同體가 構成되었을 때를 감안하여 호주와의 交易面乃至 國際協力面에 있어서 水平的 및 垂直的 產業協力を 생각하면서 合作投資와 交易擴大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現在 我國의 對호주投資現況을 보면 〈表·7〉과 같이 3件에 達하고 있고 이는 모두 資源開發에 대한 合作投資들이다.